

5/17/15

설교 제목: 내 증인이 되리라

전달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사도행전 1:1-11

(행 1: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행 1:2)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절관주** 막 16:19

(행 1: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행 1: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절관주** 눅 24:49

(행 1: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행 1: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절관주** 마 17:11, 막 9:12, 눅 17:20

(행 1: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행 1: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행 1: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저자입니다.

원래 누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한 권의 책을 썼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두 권의 책, 첫째 부분은 누가 복음, 두번째 부분은 사도행전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만큼 그 내용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끝난 누가 복음의 뒤를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 즉 4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 이 책들은 모두 예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서 글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책들은 초대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초대 교회가 세워져서 서신을 보내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진 유일한 책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행전을 신약 성경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역사서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초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으며,

종교적으로는 유대주의에서 그리스도교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오직 유대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왕국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의 사역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유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언을 죽기 전에 합니다만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셨다 살아나신 후에 하신 것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언으로 두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행 1: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행 1: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번째

(행 1: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첫번째 유언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물어 봅니다.

(행 1: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제자들의 질문이 다소 엉뚱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엉뚱한 것같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태연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화로 보아 우리는 본문에 언급된 두 주제,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에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 2: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 2: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요 2: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 2:31)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요 2:32)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예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부음'의 사건을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 즉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의 도래와 구원에 연결시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부으심을 언급하시자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날이 도래할 예표라고 연관시켜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고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 말할 수 없는 굴욕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언젠가 여호와와 함께 살게 될 것인데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날이 오기만을 학수 고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바람과 풍랑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 이 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야가 틀림 없구나! 이제 이 분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영광을 도로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동안의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모든 고통을 씻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기대하며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백성들의 기대와 환영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침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이 일주일도 안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어이없게도 힘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기는 커녕 이제 그 예수를 알았다던가 따라다녔다는 사실만 발각나도 붙잡혀 죽을까봐 노심초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뿔뿔히 흩어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잘 묘사된 구절입니다.

(눅 24:21)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 반전극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 지내던 그들 앞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믿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과연 그분이 말씀하신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구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을 생각하며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하고 예수님께 여쭙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본문 두 번째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관심끄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너희들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None of your business!

대신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정말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앞으로 확실히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으로 받는 편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더 정확히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행 10:39)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행 10:40)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행 10:41)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행 10:42)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막 16: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말이나 생각, 느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내 생각에는요, 내가 느끼기에는요....."라고 말하면 됩니까?

증인은 경험한 바를 그대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로 대답해야 합니다.

증인이란 어떠한 사건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때문에 증인은 반드시 현장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듯이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일생동안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2.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목격자라고는 하지만 증인이 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들 "못봤다"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증거해 주어야 할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내가 증인이 됨으로써 나에게 미칠 여러 가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기꺼이 증인이 됩니다.

다시말해 사건에 대해 증인이 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증거해 주어야 할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증인이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3.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와 담력이 필요합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리를 당당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무릅쓸만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가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스테반도, 칼로 목베임을 당한 야고보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한 베드로도, 도끼로 목베임을 당한 바울도,..... 순교함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보시겠습니다.

(행 2:32)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행 3:15)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행 5:30)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행 5:31)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행 5:32)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는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경험했다고,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라고 거듭거듭 증거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소심하고, 배운것 없고, 비겁하기까지 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여 이토록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다니요?

헬라어로 '뒤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권능'은 내가 받기 원한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같이 받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원수를 때려부수는 권능이 아닙니다.

세상을 둘러엮는 권능도 아닙니다. 로마 정부를 때려부수는 권능 또한 아닙니다.

비겁한 사람들이 변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되는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능을 받게 되면 자신을 이길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합니다.

이 권능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죄인인 우리는 우리 힘과 의지만으로 결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건 성령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구하며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